

##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북한개발협력\*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 I. 서론
  - II.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탐색
  - III.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 (1): SDGs 이행지표 검토
  - IV.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 (2): 북한 내부 조건 및 국제사회의 시각 검토
  - V. 결론: 북한개발협력의 SDGs 실현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 

### 〈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15년 종료한 MDGs를 승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망라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할 목표로 제시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들 또한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해 북한개발협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본 글은 SDGs의 북한 적용을 시도하여, 북한개발협력에서의 SDGs 추진 전략을 단계별로 제안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우선 추진과제로서 북한 관련 SDGs 지수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이 제안될 수 있다.

---

\* 본 연구는 박지연 외,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 201』, 제19권 제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6과 박지연 외,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6을 발췌하여 재 정리한 것임을 밝힘.

더불어 지속과제로서 SDGs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3] 보건과 복지, [6] 물과 위생 등을 목표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별 개발협력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과제 및 지속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추가과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과제의 이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I. 서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이하 MDGs) 그리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로 요약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아젠다는 개별 국가들이 원조의 공여 및 수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조화롭게 실행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공유되어왔다. 따라서 MDGs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논의와 실제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SDGs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이후 지속가능개발이라는 목표를 두고 전 지구적 개발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SDGs는 2015년 종료한 MDGs를 승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망라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할 목표로 제시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들 또한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해 북한개발협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SDGs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먼저 서론을 통해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였으며, II장에서 MDGs와 구별되는 SDGs의 특징을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개발협력 초기조건을 SDGs 주요 지표별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 및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태도 등을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과제를 서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II.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탐색

유엔은 2000년 새천년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개발 목표인 MDGs를 제안하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글로벌 비전을 선포하였다.<sup>1)</sup> 15년 후인 2015년, UN 제70차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은 Post-2015 개발 아젠다로의 핵심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설정하였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평화, 정의, 제도 등 광범위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면서 전 분야에서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

1) 강선주(2015). “Post-2015 개발 아젠다의 이해: MDGs에서 SDGs로 진화.” 『외교』, 112, pp. 94-105.

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원조 공여국의 원조방식이나 수원국의 특성, 수원국 정책과 제도의 건전성이 개발 원조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도국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sup>2)</sup> 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는 수원국의 제도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정책조언도 공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제도 및 역량 개발 논의 또한 활성화되었다.<sup>3)</sup> 이러한 논의를 거쳐 경제,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평화, 정의, 제도 등 광범위한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한 SDGs가 채택된 것이다.<sup>4)</sup>

SDGs는 사회영역, 경제영역, 환경영역 및 기타영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SDGs [1]부터 [5]까지는 사회영역의 목표들로 빈곤종식, 기아종식, 보건과 복지, 양질교육, 양성평등을 포함한다. 이중 SDGs의 [1]과 [2] 즉, 빈곤과 기아 종식 목표들은 지속가능한 빈곤의 종식상태를

2)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4, pp. 847-868; Clemens, A. Michael, Steven Radelet and Rikhil Bhavnani(2004). "Counting Chickens When They Hatch: The Short-term Effect of Aid on Growth." Working Paper. 44.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3) Shirley, Mary(2005) "Can Aid Reform Institutions?" Working Paper. 6. Ronald Coase Institute; Brautigam, A. Deborah and Stephen Knack(2004). "Foreign Aid, Institutions and Governance in Sub-Saharan Afric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53, No. 2, pp. 255-285; Harford, Tim and Michael Klein (2005). "Aid and the Resource Curse: How Can Aid Be Designed to Preserve Institutions?" *Public Policy for Private Sector Note*. 291. Washington, D.C.: World Bank; Heckelman, Jack and Stephen Knack(2008). "Foreign Aid and Market-Liberalizing Reform." *Economica* Vol. 75, No. 299, pp. 524-548.

4) Shawki, Noha(2016) "Norms Evolution and Change: Analyzing the Negoti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Shawki, Noha ed. *International Norms, Normative Change,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xington Books; Dodds, Felix et al.(2016). *Negoti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Dhiman, Satinder and Joan Marques(2016). *Spirituality and Substantiality*. Springer.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층의 취약성 완화 개념을 포함하는 등 포괄화되었고, 식량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SDGs의 [3]은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 복지의 포괄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SDGs [4]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 학습 기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s의 [5]는 여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목표는 다른 목표와는 달리 SDGs의 독자적 목표의 하나인 동시에 다른 목표의 세부목표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목표이다.

둘째, SDGs [6]부터 [10]까지는 경제분야의 목표이다. 이중 SDGs [6]과 [7]은 물과 위생, 클린 에너지에 대한 목표로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경제문제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또한 SDGs에서는 경제분야의 목표는 개발을 ‘번영’과 ‘평화’ 등 포괄적인 가치로 확장하여,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완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환경과 관련한 목표는 SDGs [11]부터 [15]까지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SDGs [11]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되 환경적 영향을 축소하며, 자연 재해의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되어있다. SDGs [12]에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패턴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다음으로 SDGs [13]은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육과 인식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한다. SDGs [14]와 [15]의 경우, 해양오염 및 육상 생태계 관리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No.	Goal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Goal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Goal 7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Goal 9	회복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Goal 10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Goal 11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Goal 13	기후변화와 대응
Goal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고와 지속가능한 이용
Goal 15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SDGs [16]과 [17]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구축과 이행수단 및 글로벌파트너십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제도 구축의 측면에서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공여국의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 될 것이다. 더불어 SDGs 체제는 공공재원과 국내외 민간재원, 국제

무역 등 재정적 수단과 제도 개선 등과 같은 비재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활용해 원조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 기업의 핵심 사업을 통해 빈곤 퇴치와 위생 개선 사업을 전개하는 등 범세계적인 포용적 성장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sup>5)</sup>

### Ⅲ.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 (1): SDGs 이행지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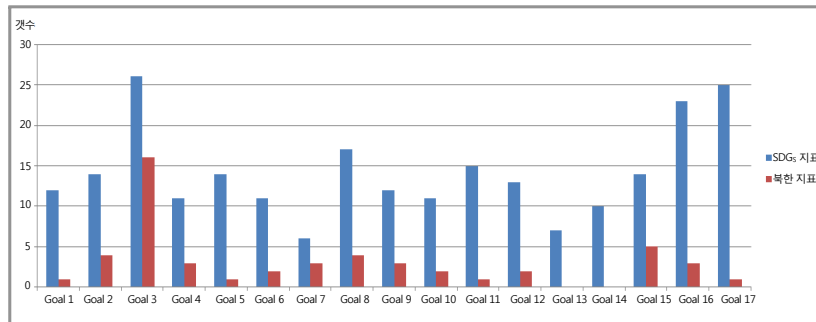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 검토를 위해 SDGs 관련 지표를 살펴본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북한의 SDGs 지표는 47개로 전체 230개 중 약 20.4%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는 초기 연구로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지표들만을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북한의 초기조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엔의 SDGs Progress Report (2016)를 비교군으로 활용한다.<sup>6)</sup> SDGs 17개 개발목표를 5개의 범주로 나누면, 사회영역, 경제영역, 환경영역, 제도구축영역, 그리고 파트너십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영역에 해당하는 SDG [1]~[5]의

5) 박지연 외(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pp. 258-259.

6) 국제사회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초기조건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제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취약국군이나, 유사 소득국가군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1〉 SDGs 목표별 북한의 이행지표



주: 중복되는 지표의 경우 중복하여 표기함.

자료: IAEГ-SDGs(2016), Final list of proposed SDGs indicators, IAEГ-SDGs; UN SDGs Indicator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검색일: 2016년 8월 25일).

지표를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직업을 가진 인구(employed population)가 국제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경우는 전체의 63.8%인데, 이것은 세계 평균값 18.6%(2005년 기준, 10.2(2012년 기준))과 비교하여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평가된다.<sup>7)</sup> 아동발달저해발생비율의 경우에도 세계 평균보다 5% 안팎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빈곤 및 기아와 영양과 관련한 북한개발협력은 지속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하게 사회영역에 속하는 SDG 3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 증진에 관해서 북한은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모성사망비율은 세계 평균의 1/3 수준이며, 아동 및 신생아 사망률도 세계평균의 1/2 수준이다. 전염병 및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 비율도 세계 평균을 하회

7) SDG [1] [4] [5] 지표의 출처는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UIS and UOE Surveys of Formal Education, OECD, CRS database 등이다. UN SDG Indicators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rea=PRK>(검색일: 2016년 8월 25일).

하고 있는데, 다만 결핵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SDG [4] 공평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관련하여 북한은 높은 수준의 이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무상교육시스템에 기반한 이행지표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교육의 질과 형평성의 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사한 배경으로 성평등 지수도 비교적 세계 평균 수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제공되는 지표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성고위직 비율' 단 하나이기 때문에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영역에 해당하는 SDG [6]~[10]의 경우 물스트레스는 세계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며, 기타 지표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기 않아 식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와 관련한 초기조건 파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다만 수인성 질병에 대한 발생률이 세계 평균 수준을 하회<sup>9)</sup>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기초적인 수준의 식수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DG [7]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 평균 수준의 최소 1/10에서 최대 1/4 수준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DG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고용 및 일자리 제공의 이행지표로서 경제성장의 수준은 목표치 7%에 크게 밑도는 5% 이하의 수준이며, 지표가 제한적인 한계는 존재하지만, SDG [9]

8) SDG [6] [7] [8] [9] [10] 지표의 출처는 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JMP), Resource Efficiency Indicator databas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ECD, CRS database 등이다. UN SDG Indicators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rea=PRK>(검색일: 2017년 12월 5일).

9) SDG [3] 의 이행지표 참조.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 및 산업화와 혁신 촉진도 세계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된다.<sup>10)</sup> 마지막으로 SDG [10] 국내적 혹은 국제적 불평등 경감과 관련하여 공개된 북한의 지표는 국제적 수준의 불평등과 관련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의 초기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환경영역인 SDG [11]과 SDG [12]의 북한지표를 살펴보면, 대기미세먼지 수준과 1인당 물질소비 수준은 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sup>11)</sup> 즉,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산업발달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문제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환경영역에 대한 SDG [13]과 SDG [14]에 대한 북한지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SDG [15] 중 북한지표는 국제수준의 지표만 공개되어있어, 북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넷째, 제도영역으로 구분되는 SDG [16]의 이행지표 중 하나인 ‘국제 기구 내 개도국 참여 확대’는 국제지표이기 때문에 북한만의 특징을 보여주기 어렵다. 그 외 ‘폭력과 이로 인한 사망률 경감’은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가진다.<sup>12)</sup> 또한 아홉 번째 하위 목표의 이행지표인 ‘출생신고가 완료된 5살 이하의 인구 비율’은 100%로 사회주의국가에 서의 철저한 관리 통제 시스템에서 기인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의 수준이 낮음.

11) SDG [11] [12]지표의 출처는 Resource Efficiency Indicator databas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Country party as of reference year. Joined the Basel Convention in 2016 등이다. UN SDG Indicators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rea=PRK>(검색일: 2017년 12월 5일).

12) SDG [16] 지표의 출처는 IMF Annual Report 2005, UNESCO website 등이다. UN SDG Indicators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rea=PRK> (검색일: 2016년 8월 25일).

마지막으로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과 관련한 SDG [17]의 경우, 열여덟 번째 하위 목표의 이행지표인 ‘재정지원에 의한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국가의 수’는 국제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sup>13)</sup>

〈표 2〉 북한개발협력의 초기 조건

Goal	Target	Indicator	Progress Report(2016)	북한(년도)
1	2030년까지 인류의 절대빈곤 퇴치	국제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인구	18.6%(2005) 10.2%(2012)	63.8%(2005)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영양결핍유병률	10.8-14.3% (2005-2014)	34.5-41.6% (2005-2014)
2	5세 이하 아동, 여성청소년, 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 제공	아동의 발달 저해 발생 비율	26.2%(2010), 23.8%(2014)	32.4%(2009), 27.9%(2012)
		아동의 과체중 비율	N/A	0%(2009)
	농촌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농업분야에 대한 외부자원 도입	12.10십억달러 (개도국총합, 2014)	1.45-4.7백만달러 (2005-2014)
3	모성사망비율 79/10만 이하로 감소	모성사망비율	0.288%(2005), 0.216%(2015)	0.085-0.105% (2005-2014)
		전문가에 의한 출산 비율	62%(2000), 75.4%(2015)	100%(2009)
	신생아 사망 12/1000으로, 5세 이하 아동 25/1000이하로 감소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6.26%(2005), 4.25%(2015)	2.61-3.27% (2005-2014)
		신생아 사망률	2.57%(2005), 1.92%(2015)	1.41-1.77% (2005-2014)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 질병의 유행을 종식, 간염, 수인성 질병과 기타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결핵발생률	0.16%(2005), 0.13%(2014)	0.38-0.44% (2005-2014)
		말라리아 발생률	0.13%(2005), 0.10(2013)	0.10%(2005), 0.20%(2010), 0.21%(2013)
		열대질병 관여 필요 인구	17억명	560만명(2014)

13) SDG [17] 지표의 출처는 NSDS Status Report, Source: <http://www.paris21.org/nsds-status> 등이다. UN SDG Indicators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rea=PRK>(검색일: 2016년 8월 25일).

Goal	Target	Indicator	Progress Report(2016)	북한(년도)
3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1/3로 감소	암, 당뇨, 만성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사망	N/A	27.15%(2012)
	약과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알콜남용	6.0리터(2005), 6.3리터(2015)	3.7리터 (2005, 2010)
	교통사고 사망과 상해 1/2 이하로 감소	교통사고 사망률	0.019%(2005), 0.017%(2013)	0.021% (2010-2013)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	청소년 출산율	5.1%(2005), 4.4%(2015)	0.07%(2008)
	유해물질 공기, 물, 토양의 오염에 기인한 사망과 질병 감소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률	0.092%(2012)	0.001%(2005), 0.002%(2010), 0.002%(2013)
		물오염에 의한 사망률	0.012%(2012)	0.0014%(2012)
		독극물에 의한 사망률	0.002%(2012)	0.003(2012)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기초보건 및 의약연구에 대한 ODA	8,89십억달러 (개도국총합, 2014)	1-30백만달러 (2005-2014)
	국가 역량 강화	국제보건규약(IHR)의 역량 강화	N/A	39.5-68.5(IHR핵심역량 Index 2010-2014)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교육 제공	조직된 학습 참여 비율	N/A	94.52%(2009)
4	취약계층의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형평성 지수	N/A	1.01(Gender Parity Index 2009)
	개도국에 대한 장학금 수혜 증대	ODA 중 장학금 비율	1,32십억달러 (개도국총합, 2014)	0.01-0.56백만달러 (2006-2014)
5	여성의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성 고위직 비율	16.1%(2005), 22.7%(2016)	15.6-20.1% (2005-2014)
6	지속가능한 물 사용 보장	물 스트레스	8.8%(2012)	11.2%(2007)
	관련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물, 위생과 관련한 ODA	10십억달러 (개도국총합, 2014)	0.21-8.41백만달러 (2005-2014)
7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공	전기에너지 접근 인구비율	83.2%(2010), 84.7%(2012)	26%(2010), 29.56%(2012)
		청정에너지 의존 인구비율	53.5%(2005), 56.0%(2010), 57.8%(2014)	5.7%(2005), 6.2%(2010), 6.6%(2012)
	재생에너지 비중의 실질적인 증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17.0%(2005), 18.1%(2012)	9.94-15.98% (2005-2012)

Goal	Target	Indicator	Progress Report(2016)	북한(년도)
8	GDP 성장률이 적어도 7% 이상	1인당 총생산(GDP) 성장률	5.2%(2005), 3.1%(2014) 개도국평균	-1.77~3% (2005-2014)
	소비와 생산에서의 자원 효율성 증대	국내 및 1인당 material footprint	9.10톤(2005), 10.10톤(2010)	0.97-1.32% (2005-2014)
		국내 및 1인당 물질소비 등	9.0톤(2005), 10.1톤(2010)	3.18-3.34톤 (2005-2010)
	무역에 위한 원조 지원 증대	무역에 의한 원조의 약속과 이행	42.75십억달러(집행) 54.80십억달러(약정) (개도국총합, 2014)	0.7-35.7백만달러 (2005-2014)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교통수단별(항공) 사람 수송	2,027백만명(2005) 2,642백만명(2010) 3,271백만명(2014)	101,313명(2005), 73,052명(2010), 232,725명(2014)
	산업부문의 점유율 확대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 가치 비중	15.8%(2010), 16.1%(2015)	21.09-22.48% (2005-2013)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발전 지원	인프라에 대한 국제지원	52.76십억달러 (2010), 59.54십억달러(2014) (개도국총합)	0.06-3.0백만달러 (2005-2014)
10	개도국발언권 강화 보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투표권	UN General Assembly 74%(2015)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32%(2015)	UN General Assembly 74%(2015)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32%(2015)
	최빈국 ODA, FDI 등 재정지원 권장	OECD ODA, FDI 데이터	588.47십억달러 (ODA 개도국총합, 2014)	72.66-307.38백만달러 (ODA 2005-2014)
11	인구 1인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대기미세먼지 수준	45%(2014)	32%(2014)
1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개발	국내 및 1인당 material footprint	9.10톤(2005), 10.10톤(2010)	0.97-1.32% (2005-2014)
		국내 및 1인당 물질소비 등	9.0톤(2005), 10.1톤(2010)	3.18-3.34톤 (2005-2010)
15	국제조약 하에서의 육상 및 담수 생태계시스템 등의 보존, 복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	전체 육지의 숲 비율	30.9%(2005), 30.8%(2010)	52.31%(2005), 42.06%(2010)
		보존지역의 비중	15.6%(2005) 16.4%(2010)	0%(2005) 0%(2010)

Goal	Target	Indicator	Progress Report(2016)	북한(년도)
15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긴 급한 행동 채택	Red List Index	0.78(2005), 0.74(2016)	0.91-0.92 (2005-201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재원 조달	관련 ODA 및 공공지출	2.44십억달러(2005), 5.61십억달러(2010), 6.96십억달러(2014) ODA개도국총합	2000년-2007년, 2011년-2014년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위한 재정 동원	관련 ODA 및 공공지출	2.44십억달러(2005), 5.61십억달러(2010), 6.96십억달러(2014) ODA개도국총합	2000년-2007년, 2011년-2014년
16	폭력과 이로 인한 사망률 경감	살인 관련 사망자	0.0053%(2014)	0.0047%(2012)
	국제기구 내 개도국 참여 확대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투표권	UN General Assembly 74%(2015)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32%(2015)	UN General Assembly 74%(2015)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32%(2015)
	모든 사람에게 법적지위 부여	출생신고가 완료된 5살 이하의 인구 비율	N/A	100%(2009)
17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능성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재정자원에 의한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국가의 수	166(2015)	133(2009)

주1: 중복지표는 중복으로 표기함.

주2: 추가설명이 없는 경우, Progress Report의 비교값은 전세계 평균값임.

주3: 지표의 값이 복수인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표기함.

자료: IAEГ-SDGs(2016), Final list of proposed SDGs indicators, IAEГ-SDGs: UN SDGs Indicator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검색일: 2016년 8월 25일);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6,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등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SDGs 초기조건을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북한개발협력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회영역에 대한 목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지표 즉 북한의 특징과 무관한 지표만 존재한다. 따라서 첫째, 북한개발협력에 있어서 북한지표의 개발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식통계의 구축과 활용은 SDG[17]의 목표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SDGs의 이행평가가 각 국의 자체적인 지표설정과 평가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자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북한개발협력은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한적이지만 이행지표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발협력 조건을 살펴본 결과 MDGs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온 분야 즉 보건과 교육 등은 일정 수준 개발된 단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같은 목표에 대해서도 지표마다 편차가 관찰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하위 목표 혹은 기준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세부 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SDG [3]의 물, 공기 오염 등으로 인한 사망 관리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셋째, 전통적인 목표와 동일한 목표들이지만, 하위 이행지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대부분은 북한개발협력에서 다루어진 경험이 없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해당 지표의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초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목표 자체가 새로운 경우가 있다. 새롭게 제안된 SDG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SDG [9] 회복가능한 인프라 건설 및 산업화와 혁신 촉진, SDG [10] 국내 혹은 국가간 불평등 경감, SDG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며 포용적인 제도구축에 대해서 북한개발협력은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V.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 (2):

##### 북한 내부 조건 및 국제사회의 시각 검토

본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취약성 인식 등을 통해 북한개발협력의 초기조건을 검토한다.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2011-2020)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중점분야는 공업지구개발, 교통망개발, 에너지개발, 농업분야개발 등이며 여기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sup>14)</sup> 이후 2013년 북한은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그 외 경제개발구 6개를 추가 발표하였다.<sup>15)</sup> 북한의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본격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sup>16)</sup> 개발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자원을 조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sup>17)</sup> 따라서 북한은 자국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북한의 1인당 GNI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140만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sup>18)</sup>하고 있으며, 유엔은 700달러 내외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sup>19)</sup> 한국은행의 추정방식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두 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치는 모두 세계은행의 최빈국 수준<sup>20)</sup>인 것으로

14) 통일부 북한경제포털, <http://nkinfo.unikorea.go.kr>(2016년 2월 12일 검색).

15) 2013년 11월 21일 상임위정령; 2014년 6월 11일 상임위정령.

16) 『조선일보』, 2014/12/13.

17)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Low\\_income](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Low_income)(2015년 2월 11일 검색).

18) 한국은행은 북한의 GDP를 산출하는 데 있어 해당되는 한국의 가격체계와 부가가치율을 적용, 따라서 북한의 GDP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GDP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2017년 12월 5일 검색).

19) UN 통계, <http://unstats.un.org/unsd/snaama/selbasicFast.asp>(2017년 12월 5일 검색).

20) For the current 2016 fiscal year, low-income economies are defined as those with a GNI per capita, calculated using the World Bank Atlas method, of \$1,045 or less in 2014; middle-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a GNI per capita of more than \$1,045 but less than \$12,736; high-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분석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GNI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경제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6년 규모는 65.3억 달러로 2015년 5년만의 하락 이후 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다.<sup>2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대상국의 지나친 쏠림현상과 품목의 후진성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그 절대 규모가 매우 작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이며, 특히 대중 무역은 전체 무역의 92.72%를 기록하였다.<sup>22)</sup> 북한의 투자유치 상황 또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는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다만, 투자 유치투자의 경우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한계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쏠림현상<sup>23)</sup>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민생안정 등의 경제상황 개선이 SDGs 주요 활용 방향이 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북한은 SDGs의 17개 목표 중 기본적으로는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과 지속 가능 농업, [3] 보건과 복지, [6] 물과 위생 등에 초점이 맞출 것인데,

---

a GNI per capita of \$12,736 or more. Lower-middle-income and upper-middle-income economies are separated at a GNI per capita of \$4,125.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2016년 12월 12일 검색).

21)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http://www.kotra.or.kr>(2017년 12월 5일 검색).

22)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http://www.kotra.or.kr>(2017년 12월 5일 검색).

23) 2004-2013년까지 중국의 누적투자액은 약 5.8억 달러이며 2013년 투자액은 약 1.8억 달러로 북한 전체 투자 유치 규모의 약 70%,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2016년 12월 12일 검색).

이러한 목표는 기존의 MDGs에서 다루어졌던 전통적인 목표와 유사하다. 다만 그와 더불어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이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의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술하였듯이 북한은 현재 최빈국이기도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의 추세가 명확히 발견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대내외 개혁개방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MDGs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3] 보건과 복지, [6] 물과 위생 등의 목표는 기존 대북지원의 지속적인 연계로 추진될 수 것이며,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이 새로운 개발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확장된 형태의 개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취약성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오고 있다. Index of State Weakness(SW), Peace and Conflict Instability Ledger(PC), (Fragile)Failed State Index(FSI), State Fragility Index(SFI), Global Peace Index(GP),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WGI) 등이 대표적인 측정 지수이다(Rice, S. E. and S. Patrick 2008).<sup>24)</sup> 다양한 지수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성 평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북한을 취약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취약성을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지수는 (Fragile)Failed State Index(FSI)이며, 취약성을 상대적으로

24) Peace and Conflict, <http://www.cidcm.umd.edu/pc/>; The Fund for Peace, <http://global.fundforpeace.org/>; Global Report, <http://www.systemicpeace.org/globalreport.htm>; Global Peace Index, <http://www.visionofhumanity.org/>;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 (2015년 10월 30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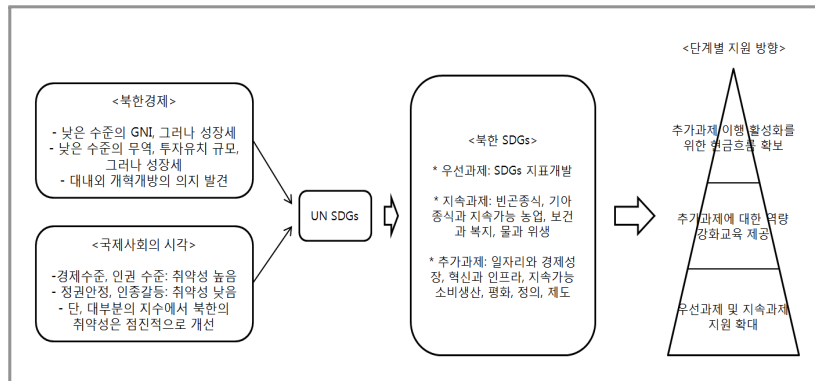
낮게 평가하는 지수는 Peace and Conflict Instability Ledger(PC)이다. 지수가 국가합법성, 경제성장, 인권 등 정치·경제적 요인에 집중한 지표로 구성된 경우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권의 안정성, 인종갈등 등 사회, 안보적 요인 등의 지표가 지수를 구성한 경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제사회는 북한이 경제, 인권 등에 있어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취약성의 절대 수준은 다르지만, 최근 취약성이 일정 수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대부분의 지수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경제난의 완화가 취약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Global Peace Index(GP)와 같이 일부 지수의 경우 취약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인권, 군사화 분야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경우, 주요 공여국의 북한개발협력은 먼저, 경제상황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지원방식이 유지, 확대되면서 [1] 빈곤 종식, [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3] 보건과 복지, [6] 물과 위생 등을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전망과 마찬가지로 SDGs에서 제안하고 있는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은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 개선과 투자유치 등과 연계해 진행될 수 있다. 단, 초기에는 직접적인 투자확대보다는 시장경제교육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지원의 방향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북한의 취약성이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V. 결론: 북한개발협력의 SDGs 실현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본 글은 최근 발표된 SDGs의 북한 적용을 시도하여, 북한개발협력에서의 SDGs 추진 전략을 <그림 2>와 같이 단계별로 전망해보았다. 북한경제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우선 추진과제로서 북한 관련 SDGs 지수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속과제로서 SDGs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3] 보건과 복지, [6] 물과 위생 등을 목표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별 개발협력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과제 및 지속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추가 과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과제의 이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과거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대북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과제는 북한개발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측면의 과제와 이와 관련한 추후 연구 제안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대북 개발협력의 재원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첫째는 기존 ODA의 범위 확대 논의에 따른 추가 ODA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다. OECD DAC은 ODA 현대화 작업을 통해

〈그림 2〉 북한 SDGs 구상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ODA 재정의 논의를 추진 중에 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현행 ODA는 첫째, 공적주체가 제공하며 둘째,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증여율이 25% 이상, 동시에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할인율 적용되는 개발재원이다. 그러나 변경된 ODA는 세 번째 기준에서 차이를 가진다.<sup>25)</sup> 새로운 ODA는 공적주체가 제공하여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재원인 것은 동일하나, 소득 그룹별 최소 증여율과 할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새롭게 정의된 기준에 따르면, 북한과 같은 최빈국에 제공되는 ODA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율과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sup>26)</sup> 해당 국가가 추가적인 ODA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sup>27)</sup> 둘째는 ODA와 더불어 북한

25) OECD(2014), 2014 DAC HLM Communique, Paris: OECD.

26) 임소진(2015),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2015년 제 1호, p. 5.

27) 다만 이러한 ODA 현대화는 유상재원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100% 무상지원의 대상인 북한이 향후 유상지원 가능 대상으로 변경될 경우에만 이러한 재원조달의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

개발에 도입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금융 포용성 강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해외투자 관련하여 OECD는 ‘투자환경 진단 및 개혁을 위한 지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sup>28)</sup> 이러한 논의는 북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프레임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초기에는 직접적인 현금 흐름(cash flow) 보다 역량강화 측면이 강조될 것이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이러한 재원조달 프레임의 적용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성공적인 북한 SDGs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더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선주(2015). “Post-2015 개발 어젠다의 이해 : MDGs에서 SDGs로 진화.” 『외교』. 제112호.
- 박지연 외(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아태연구』. 23권 2호.
- 임소진(2015).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2015년 제 1호.
- 『조선일보』, 2014. 12. 13.
- 2013년 11월 21일 상임위정령.
- 2014년 6월 11일 상임위정령.

---

28) OECD(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New York: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일부 북한경제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http://www.kotra.or.kr>

- Brautigam, A. Deborah and Stephen Knack(2004). "Foreign Aid, Institutions and Governance in Sub-Saharan Afric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53, No. 2.
-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4.
- Clemens, A. Michael, Steven Radelet and Rikhil Bhavnani(2004) "Counting Chickens When They Hatch: The Short-term Effect of Aid on Growth," *Working Paper*. 44.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Dhiman, Satinder and Joan Marques(2016) *Spirituality and Substantiality*. Springer.
- Dodds, Felix et al.(2016). *Negoti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 Harford, Tim and Michael Klein(2005) "Aid and the Resource Curse: How Can Aid Be Designed to Preserve Institutions?" *Public Policy for Private Sector Note*. 291. Washington, D.C.: World Bank.
- Heckelman, Jack and Stephen Knack(2008) "Foreign Aid and Market-Liberalizing Reform," *Economica* Vol. 75, No. 299.
- IAEG-SDGs(2016). *Final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AEG-SDGs.
- OECD(2014). (2014) *DAC HLM Communique*. Paris: OECD.

OECD(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New York: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Shawki, Noha(2016). "Norms Evolution and Change: Analyzing the Negoti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Shawki, Noha ed. *International Norms, Normative Change,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xington Books.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16)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Global Report, <http://www.systemicpeace.org/globalreport.htm>

Global Peace Index, <http://www.visionofhumanity.org/>

Peace and Conflict, <http://www.cidcm.umd.edu/pc/>

The Fund for Peace, <http://global.fundforpeace.org/>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UN SDG Indicators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rea=PRK>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Low\\_income](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Low_income)

UN 통계, <http://unstats.un.org/unsd/snaama/selbasicFast.as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